

버지니아 대학교는 소속감, 존중, 장애인 배려, 공동체 배려의 가치를 공고히 합니다. 우리는 외국인 혐오, 능력주의 그리고 모든 형태의 차별과 불의에 반대합니다.

'외부자'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 특히 아시아인들을 질병과 연관시키는 뿌리 깊은 불행한 고정 관념이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국제 사회 구성원인 아시아인 개인에게 괴롭힘이나 편견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UVA는 이를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인종, 민족, 국적, 장애 상태나 만성 질병을 포함해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태 등 특정 보호 특성에 근거해 차별 및 괴롭힘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UVA의 정책입니다. 미증유의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 이념을 공고하게 재확인하기 위해 하나의 공동체로서 실천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가 확산하는 이 때, 우리는 서로의 상호의존성을 깨닫고 전체적인 배려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립, 배타, 두려움 확산에 대항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회적 비상 시기인 지금이야 말로 공감과 공동체 배려를 위해 연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또한 위기의 시간뿐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며 체계적인 변화를 촉진해 모두가 존중받고 환영받는 모범적인 포용성과 공동체를 건설하고 유지하려면 무엇을 배워야 할지 자문해야 합니다.

CDC(중앙질병통제본부) 및 VDH(버지니아보건국)에서 권고하는 건강 예방 조치를 따르는 것에 더해, 지금 이 시기를 보다 포용적이고 탄력적인 UVA를 설계하고 구축하며 이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이에 필요한 자료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과 공동체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제안입니다.

- 공감을 통한 소통
-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
- '성공'에 앞서 안전
- 모든 대응 노력에 대해 중앙집중적인 접근성과 형평성
- 자원 공유
- 수혜 가능성이 제일 작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
- 유연성과 마음챙김 실천 참여